



펼쳐 나아가기 시작한 웹 디자이너

EO JIN,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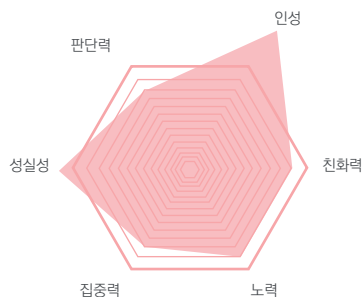
★ 1997.03.09

☎ 010.4500.4333

✉ evejin0309@naver.com

🌐 <https://jin3719.github.io/portfolio/>

Personality



Program



Skill



Timeline History

- 2016 ~ 2018 부산 여자대학교 호텔경영전공 졸업
- 2018 동서대학교 호텔경영학 편입
- 2019 동서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수료
- 2020 동서대학교 호텔경영학 졸업
- 2020 부산디자인진흥원 프론트엔드 웹 디자인 전문가 양성
- 2021 부산IT교육센터 프론트엔드 디자인(웹 디자인&웹 퍼블리싱)

License

- 자동차 운전면허 2종 오토
- ITQ 자격증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Part time

- 패밀리 레스토랑 게스후 서빙 아르바이트
- 골든투립 해운대 호텔&스위트 실습
- 부산체험영화박물관 실습
- A CLUB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활동

Keyword

상상력, 마감노예, 캐릭터 디자인, 배너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감성적, 썸네일, 일러스트, 김부각, 간생머리그녀(?)

Hobby



나는 언제나 만들 어진 다

성장과정

대학생 시절 과 특성상 팀별과제가 팀 과제가 많았는데 주로 자료조사 or PPT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도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PPT 디자인을 많이 손 봤던 것 같습니다. 늘 만들려는 과제는 세상에서 안 할 법한 주제가 많았는데 그 중 "홀로그램 축제"에 대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사진합성과 설명 및 창작 문구를 담당하였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셨던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주체하던 관광 MICE 센터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단에서 실시한 캠프토데이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창작적인 활동을 한 덕분인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을때도 힘들면서 모순적이게도 재밌게, 즐겁게 창작활동을 진행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전공수업을 받으며 팀 과제를 하고 있을 무렵 캠프톤 디자인과 호텔 패키지 상품 제작을 주제로 내준 팀 과제에서는, 세상에서 없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소였습니다. 학우들과 머리를 맞대며 과제를 조사하고 디자인할 때, 잊고 있던 디자인에 대한 흥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든다는 도전적인 것과 패키지에 만들어야 하는 사진, 내용 등등을 자료조사 할 때 "실제로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웹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고 고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야 할까?" 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및 장단점

저는 굉장히 약삭 같은 성격입니다. 자기주관이 있지만 다른사람의 의견도 이해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서 배려심이 좋다, 친화력이 좋다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종종 "인사는 잘해야지!"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인사가 좋다는 건 예의가 바르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주시하며 성장했기에 지금의 친화력 좋은 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긍정적!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만 겪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하기 싫은 순간이 있을 때 항상 부모님께서 "이래도 해야 하고 저래도 해야 한다면 웃으면서 시작하는 게 낫다." 처음에는 이 말의 뜻을몰랐습니다. 그저 싫은 일을 어떻게 좋은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며 의아해했지만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디자인을 졸업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배우며 해당 웹 디자인을 볼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전달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볼 수 있을까? 등등 늘 고민하여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작업하는 꼼꼼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는 좋은 디자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교육훈련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부산디자인진흥원 기관에서 디자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산디자인 진흥원에서 작업했던 작업은 편집 디자인 및 배너작업, 이벤트 페이지 작업, 카드뉴스 등등 본인이 주제를 정하여 작품을 디자인 하였습니다. 2020년의 선정 컬러인 클래식 블루 키워드로 해당 색상과 관련된 약세사리들을 추천해주는 카드뉴스를 작업하였고, 네이버 DA 작업으로 여름 샌달 세일 이벤트, 품 클렌징 띠배너와 이벤트 페이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디자인에 익숙해 진 후에 처음으로 들어간 큰 프로젝트는 “커피”에 관한 프로젝트로 꽃차와 아카데미를 합한 사이트를 창작하였습니다. 꽃차만으로는 식상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본 결과 아카데미가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업한 페이지는 “타블렛 정보”입니다. 매니아 층이 두꺼운 카메라나 자동차 같은 경우 정보는 매우 많지만 일러스트에 중사하는 종사자, 또는 해당 계열로 취업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비인 타블렛은 전문적인 정보 사이트가 없어서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수료 후 조금 더 다듬어진 디자인 감각을 배우고 싶어서 부산IT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어느정도 익숙해진 감각으로 디자인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티몬 띠배너, 이디아의 신규 메뉴 메인 배너, 반려 동물 간식 메인 배너 등 처음에는 간단한 배너 작업으로 시작하고 이후 여러 프로젝트로 키즈랜드, 오케스트라 어플, 인형 박물관 등등 창작으로 만든 사이트들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대학교 졸업 후, 대학 시절의 웹 디자인에 대한 흥미로 국비로 웹 디자인 교육에 참여하여 디자인 능력을 부상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디자인 작업이 많이 서투르고 어려웠지만 천천히 완성되어가는 디자인 작품을 보며 저의 적성과 잘 맞다고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을 보며 뿌듯함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산디자인진흥원 에서 수료 이 후 부산IT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보충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과 배움이지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끝까지 가고 싶다는 끈기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호텔 마케팅을 전공하며 고객들의 파악이 빠르며 독특한 상품을 만들 수 있으며 디자인센터에서 배운 감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현재의 저는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반복과 노력을 통하여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늦게 시작한 디자인이지만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갈 것입니다. 조직구성원으로서 항상 의견을 수용하며 입사 후 진취적으로 항상 배우며 익히고, 귀담아듣는 사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게 되는 디자인을 목표로 항상 소통하고 유동성 있는 디자이너가 될 것이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발전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보이겠습니다.